

일터 신학, 일터 영성으로

세상을 변혁하다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 교수

🗣 인터뷰 한정화(한양대 교수)

스티븐스 목사님의 저서와 메시지는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일터 신학(marketplace theology)과 일터 영성(marketplace spirituality)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터 신학이란 세상 속에서 신앙과 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윌리엄 퍼킨스는 신학이란 축복된 삶에 대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터 신학이란 현재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을 하는데 관한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의 존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당하면서도 품위 있는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터 영성 부분은 이 세상에서 일터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지만 일터와 일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창의적인 활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신학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영성에 관한 것인데, 신학은 의미를 제공하고, 영성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일터 신학이란
세상 속에서 신앙과 일을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을 하는데 관한
체계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업이나 직업을 통해 어떻게 인류공동체에서 청지기적 소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인식이 형성된 이유는 동양에서는 유교문화의 영향이 큼니다. 유교문화권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맨 아래에 있고 철학자들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요. 이러한 인식은 동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매일 아침 일터에
전문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
조직문화 등을 통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철학자도 돈을 버는 것이나 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도 이러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세프스 같은 역사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높은 길이 있고, 세상에서 장사하고 결혼을 하는 낮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수준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중세교회에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시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지만, 오늘날은 다시 예전의 사고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고 다른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높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낮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최하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는 훌륭한 직업입니다. 정치는 국가나 사회의 기반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정치가, 교사, 사업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칼빈의 비즈니스에 대한 견해는 어떠했습니까? 이 분들의 사상과 영향은 어떠했는지요?

루터나 칼빈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킨 분들이지요. 그러나 루터는 상업 활동에 대해 회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반면, 칼빈은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크

리스천의 합당한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모든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고 보았지만, 목사들은 다른 사람과 별도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내밀하고 구별되는 소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의 미사가 신부들의 특권이었던 것을 목사의 말씀 선포에 적용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소명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 훌륭한 일이지만 목사가 되는데 별도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비즈니스에 대해 우호적인데 반해 루터는 실제로 반비즈니스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성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결론을 가져온 반면,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엄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에서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는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문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자입니다. 조직이란 창업자의 DNA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조직문화를 바꾸려다 보면 자신의 밀려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대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는 부부동반으로 모였는데 새로 온 총장이 배우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새 총장은 오래 견뎌내기 어려울 겁니다. 조직문화는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해야 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드가 샤인(MIT 대학의 조직이론 교수)은 기업문화를 상징과 조형물 등 조직문화의 외형적인 것과 가치관과 신념을 내부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외형적인 상징이 바뀌어도 가치관이나 신념이 바뀌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보는 것과 실제의 가치관과 믿음에는 상당한 인지적 불일치가 생깁니다. 조직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장의 대변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 호텔에 들어와서 60초면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중앙을 보면 장로교에는 설교단이 있고, 카톨릭 성당에는 제단이 있고, 회중교회에는 드럼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핵심 역할은 조직문화를 배양하는 일입니다. 조직문화는 상징과 가치관과 신념 모든 차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계화 현상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한국은 세계화에 적응을 잘 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당한 저항도 있습니다. 세계화를 미국화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요?

무엇보다도 저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계화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미국화와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화를 비판할 생각이 없으면 미국화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컴퓨터를 샀는데, 점원이 점포 내 모든 제품들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고 성경은 세계화된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세계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화는 하나님의 사명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의 문제는 동질화하는 것이며 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세계화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세계화는 문화의 동질성과 제품이나 서비스의 동질화를 가져왔습니다. 좋은 측면은 세계화로 인해 상호의존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하



나눔은 우리가 상호의존적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고립되거나 인종적으로 편협하게 뭉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하며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럽이 쇠퇴하면 북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중국이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긍정적인 면은 강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약화시켜야 합니다.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

이 있는 반면 실업률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기업가정신이 요구됩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기업은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업선교(BAM)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기업선교라는 용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자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통상적인 기업선교의 의미는 기업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반 또는 제한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인데, 저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업은 회사의 인사정책, 조직문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입니다. 기업은 선교를 위한 기반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종업과의 관계를 통해, 인사정책과 조직문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이웃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애석한 것은 BAM이라고 할 때, 기업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돈을 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선교의 수단만이 아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산업화의 성공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최근 미국에서 나타난 ‘월가 점령’(Occupy Wallstreet)이라는 군중데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 ‘월가 점령’ 운동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서 작동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공감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99%는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1%가 자본주의 부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믿지만 아직도 매우 불완전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강요된 이타주의이지만 자본주의는 주도성, 창의성, 근면성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교도적 윤리, 교회의 영향력, 기독교적 관점이 없으면 인간의 탐욕을 절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에 왕들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부친이 철강회사 최고경영자였는데 제가 한 때 경리일을 하면서 보니까 보수가 신입직원의 5배 정도였습니다. 현재 미국 CEO의 월급은 신입직원의 200~300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수준의 보너스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감자본주의(compassionate capitalism)의가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독교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교회가 자본주의적 행태에 물들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북미에 거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

면 한국은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많고, 대형교회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대형교회는 규모로 인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장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교회는 운영방법이 서투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나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저는 대형교회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지역교회의 하나의 모델이지 대표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다양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배와 물의 관계와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물위에 떠 있어야지 세상이라는 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소득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는 대형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찬 모임의 마지막에 한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터는 금세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터에 전문 선교사로 나가야 합니다. 일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 조직문화 등을 통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금세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일터를 선교의 장으로 보고 각자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W**



한정화 한양대학교 기획처장 겸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 조지아 대학교(경영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아산나눔재단 이사, 기독교경영연구원 이사 겸 운영위원, 기독교 세계관 학술동역회 이사, 두산중공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인사조직학회 회장, 코스닥 상장심사 위원 및 위원장,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 벤처산업연구원 원장,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본 세속 문화에서의 일터 사역

Marketplace Ministry in an Unsupportive Culture (Daniel)

지난 2011년 12월 7일 기독교실업인회(CBMC)*의 한양, 강남, 새서울 지회가 연합으로 폴 스티븐스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이 강연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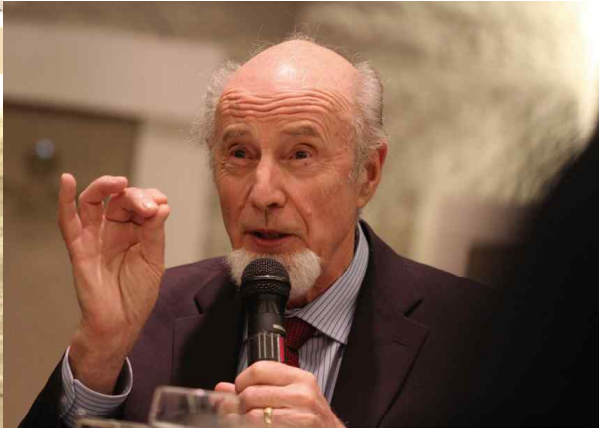
*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요 17:18)’고 하셨다. 이 위대한 선교사명은 일터에서 성육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냈는지 알 수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보내졌는데, 그들이 처한 환경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었다. 바벨론 포로생활 중에 있었고, 불에 던져지기도 했다. 북이스라엘 왕은 당시 거대 강국으로 등장한 앗





시리아로 잡혀갔다. 앗시리아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하고 수도는 니느웨였다. 앗시리아 이후 등장한 바벨론 제국은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고 포로를 잡아갔다. 바벨론 이후 등장한 강국이 페르시아인데 오늘날의 이란이다.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먼저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석한 청년들을 선발해, 바벨론 대학에서 최고 학문인 점성학, 철학, 정치학 등을 가르쳤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 자녀들이 기독교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교육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 교육 때문에 각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건 아이러니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제 기독교는 소수가 되고, 환영받지 못하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아마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포로생활을 할 때 오는 두 가지 유혹이 있다. 첫째는 동화 또는 융화되어서 사는 것(Assimilation)으로, 이방 문화 안에서 그곳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다. 다른 유혹은 게토에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Ghetto-isation)이다. 게토에 살면 주변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에 융화되어 살지도 않았고, 그 문화와 관계없이 살지도 않았다. 물론 다니엘처럼, 이방문화 가운데 포로로 생활하면서 성육신하듯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터키의 사르디스(Sardis)라는 도시에 3세기에 지어진 체육관 광장이 있다. 내부 유대교 회당의 제단에서는 로마제국의 상징인 독수리를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한 타협점으로, 회당에 로마인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로마제국의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할 수 있지만,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제국에 섞여 살았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배웠다. 완벽하게 배워서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말이다.

두 번째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루 세 번 기도를 잊지 않았다. 그때그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고 있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세운 왕국은 '순간'일 뿐이었다. 러시아가 소련 연방이었던 시절, 모스크바 지하 교회에서 온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교제 나누는 일이 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물었는데, 목사님의 확신에 찬 답이 지금도 기억난다. “공산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후에 공산정

권은 무너졌다. 다니엘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왕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면서 그 왕국이 어떻게 이어지면서 변화될지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정금 머리)이 페르시아(은 가슴과 팔)와 그리스(동으로 만든 배)로 바뀌고, 이후 로마(철과 진흙 다리)로 갈 것을 알았던 것이다. 다니엘은 다른 왕국, 곧 하나님 나라(쓰인 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계속 확장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런 왕국이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을 통해서 제국의 변화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다니엘서 7:9 장), 그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단 10-12 장) 말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당시 바벨론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화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대로 이야기했다.

다니엘이 주는 교훈

결론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 첫째 원리는 어느 정도까지 선을 넘을 것인가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교육에 관한 것이다(다니엘서 1장). 그들은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이름도 다시 받아, 바벨론 사회문화의 지식계층으로 진출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소화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의 제단에 드려진 바벨론 음식은 거절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처럼 신전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래서 채소만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고 도전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신중하고 지혜가 있었다(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가진 세계관과 영성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담겨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현자들에게 물어보고 해석을 요구했다. 못하면 죽인다고까지 했는데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안정을 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덕분에 그는 왕에게 신뢰받고 승진하게 된다.

세 번째,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문제에 빠지기도 하지만 중심이 흔들리진 않는다. 다니엘을 질투하면서 흠집을 계속 찾았던 바벨론 사람들조차 그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일터사역에 적용

우리가 이런 바벨론 포로생활 같은 환경에서 산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일터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주어진 일과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야 한다. 다니엘 1장에서 보듯, 다니엘은 지혜와 이해의 측면에서 다른 현인들보다 10배 이상 탁월했다(단 1:20). 나는 자주 기독교인 CEO들에게 크리스천 직원들이 다른 직원보다 잘 하는가에 대해 묻는다. 대개의 경우 아니라고 답한다. 기독교인 직원들이 기도모임, 교회 일에 바빠서 회사 일에 별로 힘을 못 쓴다고 한다. 영국 작가 도로시 세이어(Dorothy Sayers)는 『왜 일하는가(Why Work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는 좋은 탁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일터 현장에서 사역하는 첫 번째 원리는 탁월성이다.

두 번째는 언행일치다. 바벨론 왕국의 신하들은 다니엘에게서 전혀 흠집을 찾을 수 없었다(단 6:3-4). 믿음 직할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고가도로의 콘크리트 패널을 공급하는 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는

국제화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 현장이다.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사명이다.



명함에 “우리는 부도덕한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뇌물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거고, 사업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계약을 맺었다. 거래자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사역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일터 사역의 성공 여부는 실제 사업현장에서 어떤 원칙으로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가에 달려있다.

세 번째로, 해석하고 번역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다. 나 역시 자기 회사 조직 문화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적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표어로 사용하거나 외치고 다니지 않는다. 다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가치관으로 경영한다. 회사 직원 중 15%만이 기독교인이지만, 회사의 운영 방식은 기독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로 입으로도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 다니엘은 자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비를 알게 해주신다고 고백했다(단 2:28). 다니엘서를 읽다보면 매일 기적이 한 가지씩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사건들은 50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나는 큰 교회 목사를 하다가 내려놓고 목수 일을 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6주 정도 지났

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 공사현장에서 동료가 와서, “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왔던 것이다. 왜 나에게 물었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우리는 휴식시간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전도 집회에서 어느 버스 운전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후에 목사님은 그에게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는 이렇게 답했다. “매일 모시는 35명의 손님들에게 버스에서 설교하며 달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터 현장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된다. 국제화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주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 현장이다.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사명이다. **W**





겨울, 감성의 바다

해변에 도착하니,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많은 연인들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분주해야 할 이곳은
폭설타인지 정적만이 가득하다.
차디찬 바람소리와 함께,
파도가 다시 밀려온다.

·
·
새하얗게 채색된 내 시야속 풍경에는
스치듯 지나왔던 지난 이야기들이 살아 있다.
어느덧 발목까지 차버린 눈길을 헤치며
끝없는 그리움으로 나아간다.

- 정동진 해변가에서

정일권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강원도 정동진 ©2012 JE ONG IL KWON